Kobe University Repository : Kernel

PDF issue: 2026-11-02

『孽子』と台北の記憶 : 1970年代の都市空間をめぐって(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における人の移動と文化の多様性」報告要旨)

小笠原, 淳

(Citation)
海港都市研究,7:104-106

(Issue Date)
2012-03

(Resource Type)
departmental bulletin paper

(Version)
Version of Record

(JaLCDOI)
https://doi.org/10.24546/81003848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03848

『孽子』と台北の記憶
――1970年代の都市空間をめぐって――

小笠原 淳

白先勇（1937 －）は長編小説『孽子』（1977 － 81）において、1970年代台北の空間を舞台とし、異端者とされた「孽子」たちの男性同性愛コミュニティを主題として描いた。周縁にある彼らのコミュニティと主流社会の相克が描き込まれた『孽子』の登場は、戒厳令下の保守的な台湾社会にとって衝撃であり、その後文壇では長い間にわたり『孽子』をめぐる活発な議論が展開されることとなった。これまでの論調の多くは、同性愛や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視点から、『孽子』をどう読み解くかという問題に焦点を絞ったものであった。それだけに、空間とテクストとの相互関係についての研究はまだ充分ではない。台湾はこれまで度重なる政権の交代を経験して来たが、台北の都市表象もその都度大きな変化を強いられてきた。「孽子」たちが暮らす空間もこうした歴史背景と無関係ではいられまい。「孽子」が身を委ねたのは、現代化の波のなかで浮かび上がってきた異質空間（ヘテロトピア）である。代表的なのが台北新公園だ。新公園は日本統治期初期には遊楽施設として、太平洋戦争期には皇民化運動の拠点としてその機能を転換していく。その後国民党はここに、蓮池と中国北方式楼閣を建設した。六十年代にはこの蓮池の周囲に同性愛者のコミュニティが形成され始め、新しい社会現象となっていく。李青や小玉ら「孽子」たちが身を寄せる「王国」は、このような多層的ないわば「都市の記憶」の上に浮かびあがって来たものである。

本研究はこうした観点から、『孽子』を台北の記憶が刻印された都市小説テクストとして読み解きたい。野人珈琲室、克難街などの空間も対象として、台北の都市を立体的に再現し、「文字の都市」と「現実の都市」を行き交いながら『孽子』がもつ文学性の新たな一面に迫っていく。

《孽子》与台北的记忆

——以 1970 年代的城市空间为视角——

白先勇（1937-）的長篇小說《孽子》(1977-1981),是台灣當代最重要的文學作品之一。《孽子》以 1970 年代臺北的都市空間為舞台，描述了被主流社會排擠，逃亡同性戀圈子的青春鳥的故事。學術界對於《孽子》的研究相當活躍，過去不少論者已從社會意義、象徵意義、政治意義、同性戀以及國族認同的視角提出過諸多見解。但現在看來，對於文本與都市空間的互涉，討論得並不成熟。因此本研究試圖通過復原 1970 年代臺北的都市空間，重新解讀《孽子》的文學意涵。

白先勇是如何描繪臺北這座大都市的呢？在《孽子》的書寫中，作者白先勇對臺北空間的掌控相當精準，更使每一個空間都獲得時間性的考慮。他的這一寫作策略，讓讀者摸得著這座城市的實際，進而投入到故事的情節中去。因此青春鳥的人物形象在我們的心目中是如此栩栩如生。白先勇對城市空間的寫實描寫，在很大程度上跨越了他過去所有的書寫。當要定義白先勇小說的轉折點時，我們也許可以將這些空間描寫的精確性來作為它的一種衡量標準。

就像其它的優秀小說一樣,《孽子》之所以能成為耐人尋味的文學作品，也有幾個重要的因素。除了空間的寫實，以及有效地使用直接敘述、間接敘述等靈活的寫作技巧之外，還需要考慮的是這些空間所擁有的歷史背景，也就是本文所提及的「城市的記憶」。近一百多年來，台灣經歷了政權的數次更換。隨著大環境的變遷，臺北城市的面貌，以及含有政治意圖的地理上的象徵，都不斷地被更改。因此這座城市的空間被反复烙上了無法擺脫的時代記憶與傷痕。其中最有代表性的就是臺北新公園。新公園建於 1899 年，是日本殖民政府建立的台灣第一座西方式公園。公園當初的最主要功能是以市民的休閒為目的，各種展覽會、運動比賽以及文化活動通常都在這裡進行。然而，當時代進入到第二次世界大戰後期，新公園的娛樂活動逐漸減少，反而加強了軍事活動方面的功能。因此公園的功能也發生了本質的變化，成為渲染皇民化運動的實踐地。在二戰結束後，國民黨政府掌握了台灣的政權，在操場上建造了蓮花池與五座中國北方式樓閣，新公園的形象又再次遭到更改。就像如此，不同的政權在新公園裡不斷地改寫象徵和意識形態。青春鳥們的「王國」，就是在這些多層次的歷史背景上建立起來的。自 1960 年起，蓮花池旁漸漸形成男同性戀的社群，這成為了新的社會現象。本文以新公園、Barbarian 野人咖啡室、克難街等當時都市的異質空間 (Heterotopia) 為中心，分析這些臺北的空間的「記憶」是如何與文本《孽子》接軌的，嘗試進一步理解兩者的互涉，對《孽子》進行重新解讀。

『孽子』과 타이페이(台北)의 기억

——1970년대의 도시공간을 둘러싸고——

바이시엔용(白先勇, 타이완의 작가)의 장편소설『孽子』(니에즈, 서자庶子) 는 1970년대 타이페이(台北)라는 공간을 무대로 이단아로 취급된‘孽子’들의 남성동성애 커뮤니티를 주제로 그려졌다. 주변으로 존재하는 그들의 커뮤니티와 주류사회의 상반된 모습을 그린『孽子』의 등장은 계엄령 하의 보수적인 타이완(台湾)사회에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그 후 문단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孽子』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조의 대부분은 동성애적 관점 혹은 에스닉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관점에서『孽子』을 어떻게 분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때문에 공간과 텍스트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은 지금까지 거듭된 정권교체를 경험하였고 타이페이의 도시표상 역시 그때마다 큰 변화를 강요당했다.‘孽子’들이 살고 있는 공간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孽子’가 의지하는 것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생겨 난 이질공간(異質空間)이다. 대표적인 것이 타이페이 신공원(新公園)이다. 이 신공원은 일본통치기 초기에는 유락시설로서 그리고 태평양전쟁기에는 황민화(皇民化)운동의 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전환해 간다. 그 후 국민당은 여기에 연못과 중국북방식 누각을 건설했다. 60년대에는 이 연못 주위에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이청(李青)이나 소옥(小玉)등의‘孽子’들이 의지하는“왕국”은 이러한 다층적인 공간, 말하자면“도시의 기억”위에 부상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孽子』를 타이페이의 기억이 각인된 도시소설 텍스트로해독하고자 한다. 야인커피점(野人珈啡室)이나 극난가(克難街)등의 공간도 분석 대상화하여 타이페이 도시를 입체적으로 재현해‘텍스트의 도시’와‘현실의 도시’를 교차해가며『孽子』가 가진 문학성의 새로운 일면을 분석하고자 한다.